

시베리아 개발과 지역주의

장 원 석*

목 차

- I. 시베리아 개발의 역사
- II. 시베리아의 과학투자: 아카덱고로독
- III. 시베리아의 지역주의
 - 1.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 당시의 상황
 - 2. 소련 붕괴후의 지역자치운동
- IV. 시베리아 정체성의 모색

I. 시베리아 개발의 역사

러시아의 시베리아 점령은 1858년에 편입된 아무르(Amur)강 유역을 제외한다면 17세기 중엽에 완료되었다. 시베리아는 발틱(Baltic)지역, 크림리아(Crimea), 코커서스(Caucus), 중앙아시아(Central Asia)보다 더 큰 영토를 러시아 제국에 제공하였다. 얼어붙은 서리, 북극의 바람, 무서운 겨울로 특징되는 시베리아의 존재는 러시아로 하여금 거친 나라의 명성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캐나다인 제임스 깁슨(James Gibson)이 기록했듯이, "시베리아의 광활함 - 큰 강, 거대한 늪지, 끝없는 침엽수림과 초원 - 은 러시아가 갖는 대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한 몫을 하였다."¹⁾ 공간적 거리 역시 엄청난 것이어서 제국의 한쪽으로부터 다른 한쪽까지 이동하려면 그것은 지구를 한바퀴 도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17년 혁명 전야에 시베리아는 촌락 경제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번영을 어느 정도 구가하고 있었다. 활력을 보였던 농업은 농기구 생산을 위한 제조업, 소규모의 야금업, 석탄, 구리, 금광 채굴산업 등 의해서 보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James Gibson, "The Significance of Siberia to Tsarist Russia." *Canadian Slavonic Papers*, 14 (3), 1972, pp.442-453.

완되었다. 금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었고, 곡물은 양질의 버터와 더불어 대량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자신의 생산적 역할보다는 변경 지역으로 더 알려졌고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죄수들의 유형지로 이용되었다.

시베리아는 유럽지역의 러시아와 인접해 있었고 거대한 이민의 물결로 슬라브 주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강제추방의 역사와 거리 때문에 분리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흑자는 시베리아의 분리를 비슷한 시기에 유럽인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훗날 식민지의 지위를 벗어 던지고 독립을 쟁취한 신대륙과 비교하며 두려워하였다. 흑자는 개척자들에 의해 조국에 편입된 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받았던 미국의 서부를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다.

19세기 말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을 통해 모스크바가 시베리아로부터 획득한 부는 17세기의 모피교역과 18세기 및 19세기 초의 금광채굴로부터 획득한 부를 능가하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한 모스크바의 목적은 동부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애국자들은 조금 다른 결과를 기대하였다. 그들은 시베리아가 모스크바에서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였다. 시베리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경제문화의 교차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실상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서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철도는 모스크바의 식민지 지배를 연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더구나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는 정치적 제약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가 되겠다던 막연한 기대까지 무산되었다. 그 대신 시베리아는 강제 집단화 정책을 실험하는 무대가 되었고 시베리아 중공업 개발의 첫 단계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 이루어진 동부지역으로의 극적인 산업이전은 시베리아를 소련의 주요한 군사·산업센터로 변형시켰다.

모스크바의 시베리아에 대한 식민지 통치는 광범위한 산업화 과정을 수반하였다. 한 때 거대한 농업생산지역이었던 시베리아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중장비, 전투기, 폭탄, 기타 다수의 산업생산을 생산하기 위한 수 백 개의 제조 공장들로 가득 차있다. 이외에도 숨겨진 핵무기시설, 군사기지, 레이더 관측소, 수력발전소, 석유 및 가스 공장, 탄광 및 기타 광산, 벌목장과 통조림공장 등이 산재해 있으며 시베리아는 중공업 지대로 변신하였다. 지역의 4분의 3이 도시화된 결과,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가 3개, 50만 이상 도시가 9개, 20만 이상 도시가 22개, 10만 이상 도시는 거의 40개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서부 시베리아(주로 Tiumen 지역)는 석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지가 되었으며 그것은 외화획득의 근원이었다. 그 후 20년 동안

60억톤 이상의 석유와 5조 입방 미터 이상의 가스가 이 지역에서 산출되었다. 이 '검은 금화'는 모스크바의 금고 속으로 들어간 후 소련군의 군비증강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자신의 석유와 가스로부터 별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시베리아는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에 입각하여 생산된 모든 부를 모스크바로 이전하였다. 러시아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베리아의 주들은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되었다.

소련정권 70년 동안 시베리아의 외양은 크게 달라졌으며 소비에트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부 시베리아 석유단지가 소련 외화획득의 1차적 수입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1990년대가 되자 시베리아의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강력하게 부각되었다. 시베리아는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근원지로서 공산정권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3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대통령과 의회가 대결을 벌였을 때, 시베리아의 경제엘리트와 정치엘리트들은 공개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II. 시베리아의 과학투자²⁾

공상가들은 오랫동안 과학적 이상사회의 건설을 상상해왔다.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에 건설된 아카데미고로독(Academgorodok: city of science)은 과학자, 행정관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꿈을 시도했던 유일한 사례이다.

스탈린 통치 시절 과학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 집중되었고 연구는 개인과 연구소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그 결과 과학의 전반적인 성장이 지연되었고 유전학의 경우처럼 사이비과학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카데미고로독의 건설자들은 소비에트 정치와 경제의 압력에서 해방된 세계적 수준의 과학연구소 건설을 염원하였다. 다수의 일급 과학자들은 최근에 충원된 젊은 연구자들로서 이들은 후루시초프가 스탈린의 개인승배를 비난했던 제20차 전당대회(1956년)의 소산이었다.(p.90) 아카데미고로독이 모스크바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당기구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었다. 아카데미고로독은 모스크바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체의 당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2) Paul R. Josephson. "New Atlantis Revisited: Akademgorodok, Siberian City of Science."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ed.),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New York: M. E. Sharpe, 1995), pp.89-107.

아카데미고로독은 시베리아로부터 다수의 젊은 연구자들을 충원하여 후일 이들에게 연구소의 책임을 맡겼다는 점에서 시베리아적이었다. 그것은 또한 과거에 금지되었던 분야의 연구 외에도 시베리아 천연자원에 대한 연구를 직접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베리아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바이칼 호수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시베리아 강의 물줄기를 중앙아시아로 돌리려는 환경파괴적인 프로젝트를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시베리아적인 의식을 보여주었다.(p.91)

아카데미고로독의 건설 초기,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중앙의 동료들보다 더 자유롭다고 믿었다. 그들은 개방과 자유가 넘쳐흐르는 연구소 복도에서 혹은 클럽과 카페에서 시를 읽고 미술작품을 감상하였다.

아카데미고로독의 조직구조는 종종 '라브렌테프의 삼각형'(Lavrent'ev's triangle)이라고 이야기되었던 3개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다.(p.92) 첫 번째 원칙은 기초연구에 대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의 강제였다. 그것은 수학과 사이버네틱스의 광범위한 활용과 다양한 영역 상호간의 피드백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였다. 두 번째 원칙은 과학과 생산의 강력한 결합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련에서 언제나 강조된 내용이었지만 아카데미고로독의 경우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산업연구소와 디자인 부서의 조직 - 소위 말하는 혁신 벨트웨이 - 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세 번째 원칙은 젊은 과학자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의 전통으로 볼 때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었는데, 미국 및 일부 유럽국가의 대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와 교육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후루시초프가 거둔 권력승계 과정의 승리는 아카데미고로독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루시초프는 농촌 출신이었으며 부유한 농업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당 지도자로서 경력을 쌓았다. 권좌에 오른 그는 소비에트 농업의 근대화 외에도 도시와 연구소의 비전을 갖는 20세기 지도자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싶어했다. 후루시초프는 소비에트 경제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을 강화시켰다.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Sputnik)의 발사 역시 소비에트 과학기술의 명성을 드높임으로써 당 지도자로서 그의 입지를 굳히는데 일조하였다.

아카데미고로독은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후 소비에트 도시들보다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였다. 다양한 양식의 건축과 공원. 반년 동안 눈이 덮여있는 시베리아의 야간스키장도 도시에 개성을 부여하였다. 계획자들은 녹색공간을 보존하는데 성공하였다. 읍 저수지는 보트타기와 낚시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아이들은 아파트 근처의 녹색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았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걸어서 출근하였다.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의 번잡함과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았

기 때문에 과학연구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과학원 회원이며 소비에트 컴퓨터 역사의 중심인물인 안드레이 에르쇼프(Andrei Ershov)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아카데미고로독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1983년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근심에서 해방된 채 아카데미고로독의 오솔길을 따라 일하러 간다. 새/ 다람쥐/ 풀/ 나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이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분을 느낄 것이다.”(p.97)

아카데미고로독의 요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학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젊은 과학도들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1957년 12월 당중앙위원회는 아카데미고로독에 대해서 우수한 대학 졸업생의 우선적인 선발권을 부여하였고, 과학자들의 직장이동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하였다. 초기에는 유명과학자의 3분의 2가 아카데미고로독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고려하였다. 한편, 라브렌테프는 후루시초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시베리아 학자들에게 더 많은 자리를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1961년 편지에서 소련과학원 시베리아 지부가 실험실이나 연구소 양면 모두에서 크게 성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원의 결원의식을 개방함으로써 인재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카데미고로독의 과학자들은 미래의 과학자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으로서 엄격한 2년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기숙학교인 「물리-수학학교」를 만들었다. 1962년 초에는 학력경시제도를 도입하여 시베리아 전역의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한 후 그들에게 과학원회원과 대학교수가 강의하는 최고의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으로 진학시켰다.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은 규모나 명성에 있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전국 3위의 고등교육기관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학교의 대부분 졸업생들은 과학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아카데미고로독에 잔류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많은 연구단체와 행정조직이 아카데미고로독에 대한 특혜를 반대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제자가 시베리아로 떠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였다. 수도의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소 소장과 같은 명예로운 직책을 능력이 아닌 지역에 근거해서 임명하는 정부의 조치에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아카데미고로독은 이러한 반감과 초기의 까다로운 논문심사과정에도 불구하고 젊은 과학자들을 끌어들이며 급성장을 거듭하였다. 1963년 7월 1일 현재 과학자들의 평균연령은 전국평균인 39세보다 5살 낮았으며, 40%는 연령이 30세 미만이었다.(p.98)

아카데미고로독은 조직상의 문제,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하였다. 초기건설자들의 넓은 안목, 모스크바로부터의 지리적·정치적 거리, 전후 소련경제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중심적 역할, 후루시초프 시절의 해빙 분위기 등이 과학

적 연구에 유리한 자유와 독립의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젊은 인재들의 충원으로 아카데미고로독은 첫 10년 동안 크게 발전하였다. 연구자들은 생물학, 사회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물리학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영역에서 새로운 사유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들 대안적 사고는 과학발전 자체뿐만 아니라 소련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점증하는 소련의 중산층은 소련 정치와 사회의 근본적 전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결국 아카데미고로독의 이러한 정신은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p.105)

그러나 보수적인 브레즈네프 정부가 들어서서 과학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연구자들은 최초의 참신한 연구를 포기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아카데미고로독의 분위기 역시 변화하였다. 후루시초프의 탈스탈린주의정책 시대에 성취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과학의 자치에 대한 당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서구의 과학과 철학에 의한 오염에서 벗어나 브레즈네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교시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1968년 체코 침공이 있는 후, 당은 아카데미고로독의 자유를 상징하는 사교클럽을 폐쇄하며 이데올로기적인 일탈을 경계하였다. 관료들은 과학자들이 쉽게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지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실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왔다. 관료들의 반감과 즉각적인 경제효과를 요구하는 연구의 강요로 아카데미고로독의 과학적 성취와 지적인 자유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기초과학은 본래의 위상을 상실하였고, 당의 관료집단은 아카데미고로독의 생활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시베리아 지부의 당위원회는 지방당 위원회 속으로 편입되었고 각 연구소 역시 지방당 위원회의 통제를 받게되었다. 지방당 위원회는 연구의 수행, 구성원의 충원과 해임, 연구소내의 정치적 토론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일부 관측자들은 과학도시의 쇠퇴가 자연적 노쇠의 결과라고 말한다. 아카데미고로독의 지도자들은 젊은 과학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안정된 연구기금의 지원 때문에 게을러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도 불구하고, 아카데미고로독은 미래를 기약하는 과학발전의 중심지이다. 만일 중앙집권화가 아카데미고로독의 학문적, 사회적 생활을 파괴했다면, 탈중앙집권화는 미래 발전의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 시장의 힘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생명공학, 컴퓨터, 기타의 영역에서 경쟁에 입각한 독자적인 기업을 창업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과학지원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결과, 과거의 대형프로젝트는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프로젝트에게 자리를 넘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베리아의 과학은 아카데미고로독의 건설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III. 시베리아의 지역주의

1.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 당시의 상황³⁾

1912년부터 1930년 시기에 시베리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스크바 정부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시베리아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인구밀도가 매우 낮았고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통신수단이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베리아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였는데 주민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경제적 식민지였고 짜르 정부에 의해서 정치인과 범법자의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또한 시베리아는 강력한 지역주의적 정서 때문에 분리주의적 경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페트로그라드 볼셰비키 쿠데타 2일전 지역연합 소비에트 조직이 시베리아에서도 출현하였다. 1917년 10월 23일 이르쿠츠크에서 제1차 시베리아소비에트회의가 개최되어 「시베리아소비에트중앙집행위원회」(Tsentsrosibir)를 선출하였다. 시베리아의 70개 소비에트로부터 184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대부분은 혁명에 동조하는 노동자 및 병사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하였다. 농민을 대표하는 소비에트는 3개뿐이었다. 간단히 말한다면, 압도적으로 농민이 많은 시베리아에서 인민의 정부임을 주장하는 소비에트회의에 시베리아 주민 다수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p.76)

회의는 12명의 대표를 선출한 후 페트로그라드 무장봉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러시아소비에트회의의 결정에 따를 것을 결의하며 시베리아에서의 소비에트 지배를 확립하였다. 「시베리아소비에트중앙집행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소비에트 조직은 1917년 11월부터 1918년 2월 사이에 동부 시베리아와 바이칼 지역의 주요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장교와 자유주의자들의 무장저항을 진압하

3) Vladimir I. Shishkin, "Moscow and Siberia: Center-Periphery Relations, 1917-1930."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ed.),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New York: M. E. Sharpe, 1995), pp.75-88.

였다. 볼셰비키가 지배하는 서부시베리아소비에트와 극동소비에트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1918년 2월 이르쿠츠크에서 제2차 시베리아소비에트회의가 개최됨으로써 급진파 내부에서 「시베리아소비에트중앙집행위원회」의 위상이 분명해졌다.

제2차 시베리아소비에트회의 이후, 「시베리아소비에트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혁명조직으로부터 정부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구성원의 숫자를 세 배 늘리고, 지방 소비에트 상호간의 조정을 위한 다수의 부서 - 방위, 반혁명진압, 식량공급, 노동과 산업, 수송과 통신, 농업, 재정, 사회복지, 교육, 사법, 우편, 외교 등 - 를 조직하였다. 「시베리아소비에트중앙집행위원회」는 직접적으로 혹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서 기존의 시베리아 소비에트와 새로 등장하는 소비에트를 통제하였다.

1918년 2월 21일, 제2차 시베리아소비에트회의는 독일과 체결예정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Brest-Litovsk) 조약의 폐지를 만장일치로 요구하며 자신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시베리아소비에트중앙집행위원회」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레닌의 충실한 추종자인 야코블레프(Iakovlev)를 추천하였다. 야코블레프는 이전에 서부시베리아 지역소비에트의 집행위원회를 이끌며 시베리아의 자치를 반대해왔다. 그의 위원회는 시베리아의 자치 요구를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술수'라고 비난하였다.(p.77)

그러나 야코블레프의 임명으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대한 반대 운동이 종결되기는커녕 갈등은 심화되었다. 에니세이(Enisei)주 소비에트와 바이칼(Baikal)지역 집행위원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요지는 지방 소비에트의 동의없는 상위기구의 지시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1919년 8월 모스크바는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수립하고 식량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부기구인 「시베리아혁명위원회」(Sibrevkom)를 시베리아에 설치하였다. 시베리아 지역의 모든 지방기관과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그것에 예속되었다.

시베리아 통치를 위해서 조직된 이 강력한 기구의 출현은 구러시아공화국의 헌법에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지도 않았다.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그것은 기묘한 조직이었다.(p.79) 왜냐하면 「시베리아혁명위원회」는 설치령에서 그 권한과 구조, 존속기간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0년 12월 4일 내전의 주요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시베리아혁명위원회」는 시베리아 지역의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자 곧 에니세이, 이르쿠츠크, 움스크 지역의 일부 관리들이 「시베리아혁명위원회」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1921년 2월에 개최된 제3차 시베리아당회의에서 「시베리아혁명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재연되었다. 그것의 옹호자들은 시베리아 지역의 전권을 행사하는 전투조직으로서

「시베리아혁명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주장은 1921년 1월 티우멘(Tiumen), 옴스크(Omsk), 예카테리나부르크(Ekaterinaburg), 첼리아빈스크(Cheliabinsk), 세미파라틴스크(Semipalatinsk) 등 지역에서 대규모의 반공봉기가 발생하자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봉기는 신속하게 진압되었지만, 그것은 「시베리아혁명위원회」를 당분간 존속시켜야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시베리아혁명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실패함으로써 그것이 중앙의 확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시베리아혁명위원회」는 권한의 범위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지역의 기구였다. 「시베리아혁명위원회」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조직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었다. 그것들은 시베리아의 회생을 담보로 러시아 전역의 문제해결을 꾀하고 있었다.(p.82) 「시베리아혁명위원회」의 모스크바 지향적 태도는 식량공급이나 조세 및 예산의 문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1920년부터 1923년의 시기에 시베리아는 전국경작면적의 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5%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생산된 식량이 자체적으로 소비된 것과 달리,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식량은 상당 부분 외부로 수출되었다. 예상했던 바처럼 시베리아는 심각한 농업위기를 겪게 되었다. 연방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마찬가지였다. 시베리아에 대한 연방예산의 지출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졌으며, 연방지출의 배분비율은 1923/24년 3.9%에서 1924/25년 2.9%로 추락하였다.

1923년이 되자 「시베리아혁명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군사적, 경제적 필요성이 사라졌다.

소비에트의 권력은 공고해졌고 시베리아 근처의 백군 잔여세력과 공산통치를 반대하는 시베리아 주민들의 저항도 분쇄되었다. 이웃 몽고에서는 민중혁명에 의해서 친소비에트 괴뢰정부가 수립되었다. 3년 동안 외형적인 독립을 유지하여 모스크바의 두통거리가 되었던 극동러시아 공화국도 해체되었다. 당은 지역 소비에트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장악하였다. 심지어 「시베리아혁명위원회」, 의장인 라세비츠조차도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한지 9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베리아혁명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을 인정하였다.

1925년 5월 전연방중앙집행위원회는 시베리아 크라이(krai)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같은 해 12월 제1차 크라이소비에트회의 -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최고의 지역 권력기구였다 - 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시베리아혁명위원회」를 대체하는 크라이 수준의 새로운 정부기구인 「시베리아지역소비에트집행위원회」(Sibkraiispolkom)가 조직되었다.

시베리아의 새로운 정부체제는 「시베리아혁명위원회」보다 확실히 더 민주적이었다. 시베리아지역의 소비에트 회의는 소련정부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지방소비에트는 모스크바에 대항해 지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

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체제의 형식과 외양을 그것의 본질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소비에트가 아닌 볼셰비키 당 - 특히 중앙위원회 - 이 개별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p.84) 모든 수준의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는 당의 결정에 대한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비에트 회의는 이론상으로 전능한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권한만을 행사하였다.

「시베리아지역소비에트집행위원회」는 공정한 재원분배를 통해 지방의 예산을 강화하고 연방수입에 대한 시베리아의 지분을 확대하며 지방에 대한 재정보조를 증액해줄 것을 모스크바 당국에 계속 요청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약간의 양보만을 허락하였다. 「시베리아지역소비에트집행위원회」는 산업화만이 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재정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베리아의 산업화문제를 동시에 거론하였다. 193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지역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 5월 15일 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10년 동안 시베리아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소련이 더 이상 남부(우크라이나)의 석탄과 금속에 의존할 수 없으며 제2의 개발기지를 동부(우랄과 시베리아)에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시베리아 개발의 새로운 전략은 시베리아 지역 지도부의 뒤늦은 승리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승리였다.(p.85)

시베리아가 급격한 산업화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그것의 행정구조와 정부조직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1930년 7월 30일 전연방중앙집행위원회는 동시베리아와 서시베리아를 분리시킴으로써 통합된 시베리아의 꿈을 파괴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 소련 붕괴후의 지역자치운동⁴⁾

페레스트로이카로 알려진 개혁정책은 소비에트 특유의 방식으로 지역보다는 산업부문을 목표로 삼았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기존산업시설의 근대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신규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지역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영국의 지리학자 마이클 브래드쇼(Michael Bradshaw)는 “가격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은 시베리아와 같은 고비용지역 자원산업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라고 기록하였

4) Vladimir A. Zhdanov, “Contemporary Siberian Regionalism.”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 (ed.),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New York: M. E. Sharpe, 1995), pp.120-132.

다. 간단히 말한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시베리아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었다.(p.121)

1990년 11월 케메로보(Kemerovo),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톰스크(Tomsk), 티우멘(Tiumen), 알타르(Altar), 크라스노이아르스크(Krasnoirsksk) 지역 소비에트 의장단 회의 기간에, 시베리아 지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조직이 발표되었다. 「시베리아 협약」(The Siberian Agreement)은 지역수준에서 경제개혁을 조정하고, 시베리아 천연자원의 탐사와 이용을 규제하며, 개혁과정에 따른 사회적 적응에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시베리아 지역협력기구의 출현은 시베리아 지역 산업발전의 특화와 광활한 영토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소산이었다. 시베리아의 지방엘리트들은 자원 배분의 문제를 놓고 모스크바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모든 주정부의 지도자들은 조세를 최소화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지역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지방엘리트들은 모스크바와의 투쟁에 공동의 대의를 발견하였다.(p.123)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한 걸음 더 진척시켰다.

「시베리아 협약」이 발표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른 시베리아 지역들이 여기에 가세하였다. 1994년 현재 19개의 시베리아 지역 단위 - 공화국(republic), 지역(territories: krai), 주(oblast) - 가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은 최고의 대의체로서 주지사나 주소비에트 의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는 최소 반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노보시비르스크주의 소비에트 의장이며 미래의 주지사인 비탈리 무카(Vitalii Mukha)가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시베리아 협약」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행동반경을 경제 통합의 울타리를 넘어서 정치적 활동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그것은 지방엘리트들의 이익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협약은 1990년 11월 제1차 회의에서 소비에트러시아공화국 국가주권선언 위반을 이유로 헌법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헌법위원회가 헌법 전문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포기하고 러시아연방이 소련의 일부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소비에트 정부체제를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교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들은 1991년 2월에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 더욱 강화되어 협약의 정치적 과제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 소비에트 의장들로 구성되는 정치협회의의 구성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개적 정치활동의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정치협회의의 구성은 시베리아 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 결과, 1992년 7월 회의에서 모든 결정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지방엘리트들은 지역협력체의 조직을 통해 힘을 결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제를 개발하였다. 1993년 4월 엘친 대통령이 이르쿠츠크 주지사 유리 노지코프(Yurii Nozhikov)와 노보시

비르스크 주지사 비탈리 무카를 해임시켰을 때, 시베리아 협약은 만장일치로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였고 주지사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므로 시베리아 주정부 상호간에 분화 -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 - 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와 협상하여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인하여 주정부의 이기주의는 완화되었다.

「시베리아 협약」의 정치적 성격은 1993년의 행동으로 더욱 노출되었다. 그해 2월 협약은 러시아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같은 달 톰스크에서 「시베리아 협약」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수상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Viktor Chernomyrdin)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고위각료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시베리아 협약」의 의장이 해외투자유치를 호소하고 시베리아 과학 진흥을 위해 시베리아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의 이해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협의회 의장에 이어 크라스노이아르스크 크라이 소비에트 의장이며 「시베리아 협약」 해외경제활동 조정위원회 의장인 비아체슬라브 노비코프(Viacheslav Novikov)가 발언하였다. 노비코프는 모스크바에 의해서 시베리아 지역의 수출 지분이 결정되는 체제가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체르노미르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강한 러시아와 강한 지방'의 구호를 발틱 공화국에 의해 주장되어 소련의 파괴에 일조하였던 '강한 공화국과 강한 소련'의 구호에 비유하였다.(p.125) 러시아 수상은 시베리아 천연자원의 수출분량을 주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이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수상은 「시베리아 협약」의 대표자를 몇몇 정부 부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협의회는 경고성 발언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최고소비에트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의회해산 조치를 발표한 다음날인 1993년 9월 22일, 노보시비르스크주 소비에트의 '작은 소비에트'(little soviet)는 엘친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p.126) 소비에트의 대의원들은 노보시비르스크주의 대통령 대리인 아나톨리 마노킨(Anatolii Manokhin)의 권한을 종결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시베리아 협약」의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였다. 「러시아해방전선」, 「러시아공산당」, 「러시아자유민주당」, 「러시아민주당」, 「파미아트(Pamiat)」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다양한 정치단체와 정당들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1993년 9월 29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최고소비에트 시베리아 대표자회의 - 공화국(republic), 지역(krai), 주(province)를 포함하는 - 가 개최되었다. 「시베리아 협약」의 14개 지역단위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대표자 회의는 매우 도발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의회에 대한 포위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시베리아의 도시를

러시아 의회의 회의 장소로 제공할 것이며 시베리아 공화국의 건설가능성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1993년 10월 3일 모스크바에서 의회가 포격을 당하고 주동자들이 체포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다. 비탈리 무카가 와병중이라는 공식적 성명이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발표되었다. 10월 4일 블라디미르 이반코프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베리아 협약」의 정치적 위상 회복과 무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반코프는 “승자는 관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개혁이 매우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개혁주의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러시아를 한 순간에 개혁하려해서 안된다.....오늘의 승리로 모두가 정부와 개혁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p.128) 이반코프는 여론을 경청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대함이 러시아 정치의 미덕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다음날의 사태는 블라디미르 이반코프가 러시아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10월 5일, 엘친은 노보시비르스크 주지사 무카를 파면시켰다. 10월 6일 무카는 주지사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해임이 사태의 논리적 귀결이지만 헌법을 위반하며 문명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요법을 통한 경제개혁을 계속 반대하였다. 그는 부통령 알렉산드르 루츠코이(Alexandr Rutskoi)와 국회의장 루스란 하스블라토프(Ruslan Khasbulatov)의 무장봉기가 불법이며 자신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하스블라토프의 말에 공감한다고 주장하였다.

1994년 1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협약」회의가 열렸다. 그것은 1년 임기의 협의회 의장을 시베리아 주정부 지도자들 중에서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94년 옴스크(Omsk)주지사인 레오니드 폴레자예프(Leonid Polezhaev)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의는 또한 블라디미르 이반코프(Vladimir Ivankov)를 협의회 상임부의장으로 지명하였다. 이반코프는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누구도 「시베리아 협약」을 시베리아 공화국의 모체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결을 종식해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이반코프에 의하면 정부는 시베리아 협력의 구심체로서 협의회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부수상인 알렉산드르 쇼킨(Alexandr Shokin)과 지방정치장관 세르게이 샤크라이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중앙정부에 포진한 급진개혁세력의 활동은 시베리아 엘리트들에 의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시베리아 협약」 구성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가이다르(Gaidar)와 그의 정당이 정부로부터 퇴진함으로써 공동의 적이 사라졌고, 그 결과 소비에트 정치문화의 전형적인 현상인 중

양과 지방의 후견인 관계가 소생되었다. 협의회는 지도자들은 통합된 시베리아 정당을 만들어 새 의회에 진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시베리아 애국주의보다 전국적인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p.129) 우리는 시베리아 주정부 상호간에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게 될 고위직 친구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시베리아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 통합과 세계시장 편입 강화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발전은 시베리아와 세계경제의 통합이나 지역간의 협력강화보다는 지방엘리트의 능력과 국내정치의 추세에 달려있는 것 같다. 모스크바가 시베리아의 자원을 통제하고 시베리아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장악하는 한, 시베리아 경제발전의 대안적 청사진은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

IV. 시베리아 정체성의 모색⁵⁾

스탈린 사후 글라스노스트 시기까지 30년 동안 발표된 러시아 촌락소설(Russian Village Prose) - 그것은 이 시기에 형성된 최대의 이념적·미적 문인공동체이다 - 은 시베리아의 지역적 정체성 모색에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촌락소설은 종종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치열한 애국주의 문학이나 극단적인 지방주의 문학과 동일시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촌락소설의 본질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촌락소설이 시베리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풍요로운 전통적 러시아의 삶이 모든 촌락의 소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할수록 집단농장이나 전후 정책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은 러시아의 뿌리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p.109) 이들 작가들은 러시아의 민중과 토지, 역사와 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러시아 국가건설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촌락소설은 시베리아의 신화를 통해서 보다 강력하고 중요한 러시아의 정체성을 모색한다.

촌락소설은 중앙 러시아(Vladimir, Orel, Ryazan), 북부 러시아(Villogda, Arkhangelsk),

5) Kathleen Parthe, "Village Prose Writers and the Question of Siberian Cultural Identity,"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ed.),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New York: M. E. Sharpe, 1995), pp. 108-132.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Kathleen Parthe, *Russian Village Prose: The Radiant P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시베리아(Irkutsk, Krasnoarsk, Altai)의 세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스탈린 사후 10년 동안, 주로 중앙 러시아와 북부 러시아에서 새로운 농촌문학이 시작되었다. 시베리아 지역은 196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러한 운동에 동참했지만, 세르게이 자리진(Sergei Zalygin), 빅토르 아스타페프(Viktor Astafev), 바실리 슈크신(Vasilii Shukshin), 발렌틴 라스푸틴(Valentin Rasputin) 등의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중요한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시베리아와 북부 러시아 작가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격리감, 소박함, 보수주의, 종교적 이견의 존중, 애국적이며 대중적인 문화, 원시적 자연환경에 대한 금지 등 유사한 특질과 태도, 관심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중앙에서 배격된 제국의 변경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향은 피터 대제(Peter the Great) 때부터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구적 영향의 의해서 약화된 순수한 러시아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지리적 인접성과 다수의 재능 있는 농촌작가들의 존재로 인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시베리아와 북부 러시아 지역의 연대는 농촌문학을 지배하였다. 촌락소설의 두 중심지는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와 북부러시아의 블로그다였다. 이들 도시는 풍요로운 전통문화의 존재와 모스크바와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전국의 농촌소설가들을 유인하였다.

시베리아는 자신이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마치 뉴잉글랜드 주민, 남부 주민, 중서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표출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미국인'임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p.112) 1990년대 초 러시아의 본질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가장 부각된 무대는 시베리아이다. 시베리아의 작가들은 북부의 동료들과 모스크바 및 페테르부르크 일부 문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러시아 문학의 '러시아화'(Russification)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배제와 흡수의 인위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안정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는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인 진정한 러시아 작가와 단순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작가(가령 러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를 구별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심지어 인종적으로는 러시아인이나 러시아의 대의를 배반하는 사이비 러시아 작가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들 작가와 비평가들은 『덴』(Den), 『모스크비스키 리테라토르』(Moskovskii literator), 『소베츠키아 로시아』(Sovetskaia Rossiia), 『나쉬 소프레멘니크』(Nash Sovremennik), 『몰로다이아 그바르디아』(Moldavaia gvardiia)와 같은 간행물을 통해서 이상적인 러시아 작가를 가려내기 위한 특수한 척도를 제시해왔다. 그들은 또한 푸쉬킨(Pushkin), 레르몬토프(Lermontov), 구미레프(Gumilev), 블록(Blok), 에세닌(Esenin), 마야코프스키(Mayakovsky) 등 저명한 문인의 죽음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들 작가들은 러시아를 위해 순교한 성자

로서 러시아 민족의 상징이 되었다. 시베리아 작가들은 페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일기』를 신성한 교본으로 간주하면서 그를 공식적으로 성인의 반열에 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 신화의 중요한 요소는 그가 라스콜리니코프(Raskolnikov)처럼 시베리아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서구적 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p.112)

민족주의자들은 이상적인 작가로서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이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교회 신자이며, 매우 의로운 인물이고, 정치적 보수주의자이며, 정교회 슬라브 형제들에게 충실하고, 외국인들을 일반적으로 경계하며, 러시아의 시민적 도덕적 전통을 고수하는 고풍스러운 인물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부분적으로 촌락소설 작가 자신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반영하였다. 문단의 러시아화 운동이 의인이나 영웅적 행위를 다루는 오래된 러시아 신화에 의존하는 반면, 최근의 논쟁은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수사학을 동원하며 과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를 통제함으로써 작가들을 체제옹호론자 혹은 반체제론자로 이분하고 이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며 그들 자신 제국주의 러시아의 시인이 되기를 원한다. 1993년 3월 스타니슬라브 쿠냐예프(Stanislav Kunaev)는 『덴』 20호에 “오 제국이여! 나는 그대의 시인이로다”라는 귀절로 시작하는 시를 발표하였다. 많은 러시아 작가와 비평가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였다.

현대 시베리아의 드라마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중심적 인물은 발렌틴 라스푸틴(Valentin Rasputin)이다.⁶⁾ 그는 러시아 속의 시베리아와 세계 속의 러시아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연과 농촌의 문화, 스탈린주의의 불의, 전시의 궁핍, 파괴적인 전후의 개발을 지켜보았다. 그는 도시의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그후 기자, 수필가, 소설가, 환경운동가, 민족지학자, 러시아 문화의 열렬한 수호자, 고르바초프 위원회 위원, 보수적 민족주의의 대변자로서 생애를 살았다. 그는 바이칼 호수(Lake Baikal)와 시베리아를 문학상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⁷⁾ 그의 작품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신성한 바이칼, 시베리아, 러시아를 강조하였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신성한 것과 불순한 것, 토착민과 외래인, 성자와 악마로 2분되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미개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

6) 라스푸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Gerald Mikkelson and Magaret Winchell, *Siberia on Fire. Stories and Essays by Valentin Rasputin* (Dekalb, IL: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9).

7) 이에 관해서는 Peter Matthiessen, “The Blue Pearl of Siberia,”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4 February 1991, pp. 37-47 참조.

한 원동력의 근원지로서 시베리아를 강조하였다. 러시아 제국의 전진기지이며 조상들이 수 백년동안 살아온 이 땅은 라스푸틴에게 이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중심부로서 그리고 순수한 러시아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1976년 『마티오라여 안녕』은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베리아의 섬마을인 마티오라는 수력발전소 댐건설로 인해서 해저로 가라앉았다.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는 주민들은 조상들의 유적과 더불어 사라져 갔다.(건물들은 이미 당국에 의해서 해체되었다) 그러나 라스푸틴은 마지막 부분을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었으며, 사라진 것은 안개 속에서 보트를 타고 고향을 떠나는 파벨(Pavel)과 그의 이웃들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마티오라의 묘사는 전설상의 러시아 도시인 키테츠(Kitezh)의 마지막 순간과 흡사하다.⁸⁾ 전설에 의하면 키테츠는 몽고족의 첫 침입 당시 순수함을 간직한 채 외국인들이 발견할 수 없도록 볼가(Volga) 호수의 밑바닥으로 침몰하였다. 키테츠 역시 신의 가호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에 부응하여 신비한 안개를 만들어냄으로써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사람들은 키테츠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믿었다.(p.116)

러시아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키테츠 - 자급자족적이며 자기완결적인 장소, 외국인의 영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소 -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피난이 아니라 악마적이며 반(反)러시아적인 개발로부터의 피신이다. 시베리아의 도시 - 라스푸틴의 소설 『시베리아, 시베리아』에 그렇게도 아름답게 묘사된 - 와 아직도 광활한 숲, 상처받았지만 영원한 바이칼호는 라스푸틴의 시베리아와 러시아 사람들에게 대한 은유이다.(p.117)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촌락소설가들이 남아있는 러시아의 신성한 토지와 전통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8) 키테츠에 관해서는 Munin Nederlander, *Kitezh: The Russian Grail Legends*, trans. Tony Langham (London: Aquarian Press, 1991) 참조.